

지역 매아리

재경김제항우회 송년의 밤 성황리

재경김제항우회(회장 강완구)는 6일 재경항우회 회장 이·취임식 및 2018년 송년의 밤 행사를 서울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완구 회장, 최문식 명예회장 및 박준배 김제시장, 김중희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김제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김제시 간부공무원, 항우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공식행사에는 재경항우회장 이·취임식, 축사, 신임 임원 위촉장 전수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에는 김제시 홍보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민찬, 음면동별 장기자랑 등의 화합의 장으로 친목을 도모했다. 강완구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12년 동안 쌓아놓은 최문식 회장의 업적을 토대로 앞으로 재경김제항우회 활성화와 고령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상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봉용)는 지난 5일 김제시청 3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뿌리기업·농기계 기업 대표 및 강봉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핵심인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상담회는 기업과의 1:1 상담으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관련 R&D 기술개발지원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 참여방법과 절차 안내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에게 문의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의정비 인상 여론 반응 '냉랭'

완주군의회, 1인당 연간 4470만80원~7,661만4080원 수령 내년부터 회기일수 110일로 10일 늘려... 직원 1명 증원 예정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본보 12월 6일자 10면)

의원들은 의정비를 대폭 올려야겠다는 입장이고, 지역사회 여론은 냉랭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임실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주민 여론은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시큰둥하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2.6%이상 인상 계획이 군 정가에 퍼지자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의회 의원들이 공개된 의정비 외에 여러 명목으로 수령하는 액수가 연간 적게는 412만 원 많게는 3,192만 원 정도 된다는게 예산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7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만큼씩 인상돼 왔다.

올해 기준 완주군의원 1명당 연간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월정수당은 2,265만4080원으로 총3585만4080원이고, 내년 인상률은 적어도 2.6%다.

이 금액은 행정공무원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이다. 통상 의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5급 사무관 이상은 돼야한다더니, 부군수급은 돼야 한다는 등 의견이 비등해 왔다.

그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잇달 만 하면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한다. 실제 제



완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오늘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완주군의회 전경.

방의원들이 지급받는 돈은 7급 10호봉 수준이 아니다.

올해 완주군 예산서에 따르면 군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585만4080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여비, 임무추진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알려진 의정비보다 높다.

완주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는 의정교류홍보비 78만6,000원 등 모두 340만6,000원이다. 국민연금으로 108만원, 건강보험료로 78만원이 지출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데 직위에 따라 412만 원~3,192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원 1인에게 배정되는 연간 예산은 ▲의장 7,661만4,080원, ▲부의장 6,066만800원, ▲상임위원장 5,542만180원, ▲일반 의원 4,470만180원이다.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638만원 정도다.

뿐만 아니라, 조례상 완주군의회

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이다. 회기일수별로 따지면 의원들의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월별로 ▲의장 766만1,408원 ▲부의장 606만6,008원, ▲상임위원장 554만2,008원, ▲일반의원 447만180원 정도다.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또한 회기중 의원들의 업무시간은 평균 오전 10시 출근, 오후 4~5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2019년부터 회기일수를 110일로 10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원을 요청했다. 집행부측은 일단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군집행부는 10일 늘어난 의정활동비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완주군 정가. 군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의정비가 적어 인상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믿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뒤에 숨겨두고 핍수를 부린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감을 넘어 이제는 비난할 힘도 없다는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분출했다.

이론과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로컬푸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및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완주군은 행안부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2.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청년창업 랩(LAB)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리앙'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 ▲사회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청년보부상 사업을 추진해 62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선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식품부 주관 농산시책추진 지자체 평가

김제시 '최우수 기관' 선정

쌀 수급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정책 추진 호평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8년 농산시책추진 지자체 평가에서 2016~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국에 유례가 없는 수상으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물로 보인다.

금번 농산시책추진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기초단체의 쌀 수급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및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김제시는 쌀 안정생산 확보를 위한 벼 재배면적 등 노력의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김제시는 올해 쌀 안정생산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인 논 타작물 전환 면적 목표 1,257ha 대비 2,020.9ha 확대 160.7% 초과 달성하여 전국 1위의 전환면적을 기록하였고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쌀 선도 경영체교육훈련 과정 참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부정책에 적극 추진으로 쌀 안정생산 확보에 힘쓰겠으며 농업도시로써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농업을 육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잘 사는 농촌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 청년 일자리 육성 박차

완주군이 청년 일자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1일차에는 '완주군 지역과 청년 정책의 이해', '완주군 사회적경제 생태계 이해'가 2일차에는 '완주군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탐방'으로 구성됐다. 이론과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로컬푸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및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론과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로컬푸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및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완주군은 행안부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2.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청년창업 랩(LAB)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리앙'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 ▲사회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청년보부상 사업을 추진해 62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선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론과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로컬푸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및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완주군은 행안부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2.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청년창업 랩(LAB)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리앙'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 ▲사회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청년보부상 사업을 추진해 62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선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론과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로컬푸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및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완주군은 행안부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2.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청년창업 랩(LAB)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리앙'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 ▲사회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청년보부상 사업을 추진해 62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선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안전한 출산 자가관리용 혈압계·혈당측정기 연중 대여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임신부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보다 나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성 당뇨 및 자가관리가 필요한 경증 임신중독증 임신부에 대하여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 혈압계 및 혈당

측정기 대여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신중독증은 임신으로 인하여 혈액과 순환기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여 혈압이 올라가며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단백뇨가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임신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많으므로

이에 임산부들이 출산 전 까지 가정에서 자가 관리를 통하여 응급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한 출산으로 아기와 임산부 모두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 일환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